

4·3 왜곡 논란 표지석 첫 철거 절차 돌입

제주시 외도동 옛 외도지서 터에 4·3 왜곡 표지석 남로당 무장대 ‘폭도’ 기술 등 진상보고서와 배치도, 세차례 원상회복 요구에 미이행시 변상금 부과

제주시역 옛 경찰지서 터에 세워진 ‘4·3 왜곡 논란 표지석’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2월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에 제주시 외도동 옛 제주경찰서 외도지서 인근에 설치한 표지석이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한데 이어, 해당 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최근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4·3정립 연구·유족회는 4·3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경찰관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12개 옛 경찰지서 터에 표지석을 설치한 단체다. 표지석 12개 중 2개는 인근에서 진행되던 공사 등으로 인해 이후 철거돼 현재는 10개가 남아 있다.

논란은 표지석이 제주 4·3을 왜

곡 기술해 이념 논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촉발됐다.

표지석은 1948년 4월 3일 5·10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에 대해 ‘폭도’로 표현하거나, 무장봉기 목적을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해 국가가 채택한 4·3진상보고서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주민을 추모한다면서도 경찰관 희생 사실 기술 방식과 달리 양민들은 누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적지 않아 4·3의 국가 폭력 역사를 축소했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도가 이들 표지석에 대한 ‘퇴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이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왜곡 논란 표지석에 대해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도는 표지석 설치 지역 관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4·3 역사 왜곡을 이유로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자 도로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이를 토대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표지석이 들어선 제주시 한림·신업·조천·외도와 서귀포시 대정·남원·성산 등 7개 옛 경찰지서 도로는 공유지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옛 세화·애월지서 표지석 설치 부지는 경찰청 소유, 옛 화북지서 표지석 설치 부지는 사유지여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도는 지난달 말 표지석 설치 도로를 관리하는 각 행정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어 4·3왜곡 논란 표지석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1차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옛 외도지서 표지석에 대해선 2차 명령을 내리고, 아직 행정 처분 전인 나머지 표지석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원상회복 절차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상회복 명령을 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도로법에 따라 나머지 6개 무단 설치 표지석에 대해선 조만간 각 행정기관별로 원상회복 명령을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령 미이행으로 변상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다른 무단 설치 시설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1일 금요일 음 7월 9일 (1물)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6/33°C
모레	구름많음	26/33°C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C, 낮 최고기온은 30-32°C로 예상된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한라산 남쪽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00	달뜨기 14:27
해질 19:14	달짐 1:10
물때 만조 02:44	간조 10:56
물때 19:26	간조 1:10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교육교부금 개편 신중히”

도교육청, 합리적 결정 촉구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국세와 연동해 배분되는 교부금 산정을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속 교육감은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며 합리적인 정책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선희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학교비정규직 노조 촉구 기자회견

제주시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예술강사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공교육이지만 대책없이 줄어드는 예산에 이를 담당해 온 예술강사들이 고용불안과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제주는 지난해 전체 193개교 중 146개교(지원율 75.6%)에 대해 예술교육 운영학교가 지원됐는데, 전체 191개교 중 154개교(지원율 80.6%)에 대해 지원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 들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과 고의숙 교육감에 “노조와 면담,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학교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내년 예산 증액과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예술강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소정기자

초등생 자살 시도에 ‘회복 지원단’ 운영

도교육청, 전문가 참여 속 한시 운영

대응·지원 과정 전반 사실 관계 조사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자살 시도 사건(본보 8월 12·13일자 4면, 18일자 5면)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 (이하 지원단)을 꾸린다. 자살 시도 대응과 지원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도 이뤄진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지원단에는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학교 공동체 갈등 해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과 조정의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해당 학교 개학에 앞서 오는 27일 이전에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학생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자체적인 사실 관계와 조치 내용을 확인·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 지원, 유관 기관 연계, 기록 관리 등이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자살 시도를 한 학생과 목격 학생들에 대해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대상 혐오·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선 교(직)원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집단상담 등 2차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선희기자

2026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트래킹 성공개치를 축하합니다

발라먹차

제주골드키위

Jeju sweet gold kiwi stick

노랑게 빛나는 제주산 스위트키위의 풍성한 달콤함에 제주레몬즙의 상쾌한 산뜻함을 더해 한 손가락에도 제주가 가득 담겼습니다.

한 손가락에 담긴 제주, 달콤함과 상쾌함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스프레드형 액상차

발라먹차 제주골드키위 다양하게 즐기는 꿀팁!

힐링 티타임
물 60ml에 1포를 넣으면
쌀쌀한 날 온수로 따뜻하게~
상큼하게 냉수(탄산수)로 시원하게!

요거트 토포핑으로
플레인 요거트 위에 부려 먹으면
키위의 상큼함과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환상의 조합

빵에 발라서
빵이나 비스킷에 쓱~ 발라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

샐러드 드레싱으로
샐러드 위에 부려 상큼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구입처_ 제주도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729-1551), 노형점(750-6500), 오라점(747-6260) | 제주도농협 온라인쇼핑몰

[제주점] (주)자일에프엔비 [유용천포천점] 제주도농협협동조합